

3천억대 짝퉁 명품 유통...광주가 물류창고

쌍촌동 주택가에 거점 마련...15만여점 은·오프라인 판매

특허청 특별경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총책 등 3명 구속

광주를 거점 삼아 루이뷔통, 샤넬, 프라다 등 30여개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선글라스 등 위조상품 3200억원어치(정품 시가)를 전국에 유통해온 일당이 특허청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광주에 창고와 사무실 등 거점을 마련하고 중국산 위조상품(일명 짝퉁상품)을 국내에 유통한 총책 장모(45)씨와 관리직 김모(32)씨, 판매직 박모(31)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 일당에게서 짝퉁상품을 사들이는 시중에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33)씨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총책 장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과 물품창고를 차려놓고 전국의 도소매업자 20여명을 통해 정품 시가 3200억원어치의 짝퉁상품 15만여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의 유통 물품 금액은 지난 2010년 특허청 특사경 창설이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650억원이 최고액이었다.

짝퉁상품 유통에 손대기 전 장씨는 무역업을 했다. 광주에 무역회사를 차리고 중국 등 해외에서 정상적인 의류와 신발 등을 들여와 합법적인 무역업을 해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그러던 중 경영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

2013년께 중국으로 건너가 신규 아이템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짝퉁 제조업자와 만나 거래를 틈 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통망 등을 이용해 무더기로 짝퉁상품을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 특사경은 '명품을 샀는데 짝퉁인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역추적에 나서 지난 1월20일 일당의 사무실과 물품 창고

등을 단속, 보관 중이던 짝퉁상품 2만2000점(정품 시가 314억원어치)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해 수시로 물건을 들여온 뒤 택배를 통해 중간 판매업자에게 배송했고 이들에게서 위조상품을 건네 받은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판매자들은 고객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도 별도 운영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장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거래를 하는 등 신분을 숨기고 SNS로 은밀히 연락하는 수법을 써왔다. 명품 손가방을 3만원 선에 들여와 최소 2배 이상 마진을 붙여 유통하다 보니 이익이 쌓였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빌라에 살며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들이 보유한 판매매장과 보관창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가 사무실과 물품 창고를 급습, 짝퉁상품 2만2000점(정품시가 314억원어치)을 압수했다. 특허청은 이 중 일부를 지난 31일 대전 청사 내에 진열했다. <특허청 제공>

“프로축구단 입단시켜 줄게” 역대 가로채

전 에이전트사 직원·유소년 축구클럽 감독 적발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며 역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전 프로축구단 에이전트사 직원과 현직 유소년 축구클럽 감독이 경찰에 적발됐다.

순천경찰은 지난 31일 고등학교 축구 선수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들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접근, 3명으로부터 1억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프로축구단 입단 에이전트 회사 직원 J(45)씨를 구속했다. 또 J씨의 친구로 유소년 축구클럽 감독인 H(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친구 H씨로부터 소개받은 한 피해자의 아들 진학 상담 과정에서 “프로축구단에 입단하면 연봉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1

억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J씨는 국내 유명 축구 에이전트 회사 소속 직원이라고 학부모에 소개하고, 실제로 유명 선수들을 이적시켜 주고 프로축구단 감독들과도 모두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H씨에게 3000만원이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으나, H씨는 J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J씨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축구부 감독과 프로축구 관계자들에게 술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체육특기생 입학과 프로축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는 지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돈 찾아 냉장고 보관’...보이스피싱 절도 6명 검거

중국 송금액만 50억원 달해

보이스피싱과 절도범죄가 결합한 일명 ‘냉장고 보관 절도형’ 금융범죄단의 절도책과 송금액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일당과 짜고 집안에 보관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중국동포 김모(21)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돈을 중국에 송금한 또 다른 중국동포 김모(여·49)씨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절도책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강모(여·72)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200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3200만원을 훔친 혐의다.

피해자들은 경찰을 사칭한 김씨의 공범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 은행에 있는 돈 전부를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말에 속아 은행에 보관 중이던 예금을 인출, 집에 넣어뒀다. 이후 범죄단의 꼬임에 넘어가 집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집을 벗어났다가 범행을 당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훔쳐 중국으로 보낸 금액만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60대 남녀 잇따라 숨져

살해 뒤 자살 가능성 수사

평소 알고 지내는 60대 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두 죽음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31일 여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께 임모(여·62)씨가 여수시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임씨의 시신에서 목 눌림 흔적을 발견하고 타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19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해수욕장에서 박모(63)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가 임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의 손톱에서 발견된 채취물과 자택에서 발견된 단추와 전선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봤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추징금만 102억...불법 도박사이트 엄벌한 법정

광주지법, 운영자 31명 선고

“사회적 폐해 커 죄질 무겁다”

광주지검도 6명 구속 기소

“피고인 박○○ 징역 3년6월에 1억 9700만원 추징, 김○○ 징역 5년에 86억원 추징...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7000만원 추징...”

지난 31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302호 법정. 31명의 피고인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모두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였고,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영호준 판사는 이들의 공소사실과 양형사유를 밝힌 뒤 한명한명에 대한 주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31명 가운데 7명에게 실형(징역 1년6월~5년)을 선고하고 이 중 2명은 법정구속했다. 또 적게는 9000만원에서 많게는 86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0만~7000만원을 추징했다.

이 법정에서만 추징된 금액은 102억원을 넘어섰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판돈이 5070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253억원으로 추산, 죄질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미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무려 5070

억원에 이르는 판돈을 굴렸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만 25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지검도 이날 1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업주 김모(53)씨와 이모(37)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도시에 서버를 설치한 뒤 해당 사이트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10개월여 동안 운영한 사이트의 도박금액 규모는 총 1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총책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을 추적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교생 보건실서 숨진채 발견

지난 2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보건실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A(16)양이 숨져있는 것을 보건교사와 A양의 어머니가 함께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이가 다 운중후군, 지적장애,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들어 몸이 안 좋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이날도 오후에 조선대로 풍물수업을 배우러간 다른 친구들과 달리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누워 있었는데 깨워보니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김형호기자 khh@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에 돈 뜯고 외제차까지 챙겨



○...광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울산 거주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외제 승용차까지 챙긴

40대 남성이 쇠고랑. ○...지난 31일 울산울주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위모(44)씨는 지난 2010년 11월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여·51)씨로부터 1년 동안 27차례에 걸쳐

8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챙긴 혐의.

○...A씨는 별거 중인 남편에게 받은 자녀 보육료에다 대출까지 받아 위씨에게 돈을 줬는데, 경찰은 “울산에 사는 A씨가 친구들과 광주에 놀러갔다가 자신을 열대

과일 수입업자라고 속인 위씨를 만났고, ‘아름다’라는 말에 연민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